



‘보건교사 안은영’서 ‘움잡이’ 백혜민역 송희준

“이젠 배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경미 감독·정유미와 호흡 편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좋았다

“‘보건교사 안은영’을 찍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저를 ‘배우’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을 찍으면서 ‘나는 이 길을 갈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에서 ‘움잡이’ 백혜민 역으로 첫 드라마 신고식을 치른 배우 송희준(25)은 최근 종로구 수송동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품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극 중 혜민은 ‘재수가 옴 불는다’는 말에 나오는 ‘옴’을 먹어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다. 오랜 기간 살아왔지만 한 번도 스무살을 넘겨 살아 본 적은 없는 인물이다.

그는 “혜민이가 복합적인 인물이다 보니 어떤 일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느끼는 감정이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이 많았다”며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폭이 작지만 그 깊이는 표현을 해야 했기에 감정 표현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썼다”고 밝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움잡이의 생활반경인 5.38km 경계선을 넘어가던 순간을 꼽았다.

“그 장면을 촬영할 때 감독님께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소소한 동네 풍경인데 혜민이한테는 그림고 보고 싶었던, 너무 아름다운 순간인 거야’라고 하셨어요. 고민이 많았는데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는데 슬픈 마음이 들었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너무 눈물이 나서 많이 울었어요. 연기가 계속하고 싶다고 느끼게 해 준 순간이었죠.”

미장센 단편영화제 ‘절대악몽’ 부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히스테리아’ (2018)로 데뷔한 그는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이경미 감독과의 인연을 회상했다.

“영화제에서 감독님을 처음 뵈고 찾아보니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의 감독님이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감독님 에세이집이 나온 걸 알게 돼서 찾아 읽고 ‘에세이 너무 잘 봤다’고 메일을 드렸어요. 그때 감독님께서 ‘희준씨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거예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죠.”

그는 이경미 감독과의 작업에 대해서는 “방식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다”며 “늘 울타리를 크게 쳐주시고 그 안에서 제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

되 방향은 잡아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참 좋았다”고 말했다.

송희준은 안은영을 연기한 배우 정유미에 대해 “‘움블리’라는 별명이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표했다.

“유미 언니랑 촬영할 때가 많다 보니 언니한테 도움을 참 많이 받았는데, 신인인 제가 편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배려해주셔서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

서양화를 전공하고 모델로 활동하다 가수 디, 밴드 안녕바다 등의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를 처음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내재한 감각이나 감성, 성격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만들어내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연기를 할 때도 그림을 그리는다는 생각으로 임한다”고 말했다.

이제 데뷔 3년 차, TV 화면 속 자신의 모습도,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도 마냥 어색하고 신기한 그이지만 배우로서의 포부는 명확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제가 후회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연기를 보여드리면서 나아가고 싶어요. 앞으로도 겁내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예요.”

/연합뉴스

트와이스표 레트로? ... “한번만 들어도 흥얼거릴걸”

정규 2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 발표

복고풍 노란색 의상 현란한 춤 선배

“트와이스의 성장엔 끝이 없습니다”



최근 가요계는 확실히 레트로가 화두다.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가 유로 디스코풍 ‘웬 위 디스코’ (When We Disco)를 히트시킨 데 이어 JYP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도 레트로 감성이 가득 담긴 노래로 돌아온다.

트와이스가 26일 발표하는 정규 2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 (Eyes wide open) 타이틀곡 ‘아이 캔트 스톱 미’ (I CAN'T STOP ME)는 뮤직비디오 티저에서부터 1980년대 느낌이 물씬 풍긴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복고풍 노란색 의상을 맞춰 입은 멤버들이 강력한 신스 사운드에 맞춰 현란한 춤 동작을 선보인다.

트와이스 다현은 이날 앨범 발매에 앞서 소식을 통해 전한 일문일답에서 “약기들이 강한 색채를 뽐내내는 곡이자 ‘레트로 장인’ JYP의 강점이 확실하게 드러난 노래”라며 “한 번만 들어도 흥얼거리게 되실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효는 “뮤직비디오에서도 곡이 가진 레트로 감성을 화려하고 다채롭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아이즈 와이드 오픈’은 트와이스가 2017년 10월 발매한 정규 1집 ‘트와이스타그램’ (Twicetagram) 이후 약 3년 만의 정규앨범이다. 나연은 “오랜만의 정규 앨범이다 보니 설레는 마음이 크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성장한 트와이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모모는 “3년 만에 내는 정규 앨범인데, 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정말 아쉽다”면서도 “누구보다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이전 앨범에서 한 적 없는 새로운 콘셉트를 보여드리는 작품”(사나)이기도 하다.

다현은 “과감하게 선을 넘는 도발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데, 많은 분이 전에 본 적 없던 새로운 트와이스를 보고 놀랄 것”이라고 했다.

“트와이스가 지금까지 활동에서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위태롭고 불안한 감정을 노래했어요. 누구나 밝은 면과 위태로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음반을 통해 트와이스의 또 다른 면은 어떤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미나)

새 앨범 콘셉트를 예고하면서 슈트 의상으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채영은 “트와이스의 시크하고 멋진 매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의상”이라며 “많은 분이 신선하다고

느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총 13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영국의 팝 디바 두아 리파와 JYP 수장 박진영, 인기 싱어송라이터 헤이즈 등 참여진이 화려한 것으로도 주목받았다.

미나와 쯔위는 “든든하다는 생각과 함께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모았다.

멤버들의 단독 작사곡이 다수 수록된 것도 눈길을 끈다. ‘업 노 모어’는 지효, ‘두 워 라이크’는 사나, ‘브링 잇 백’과 ‘킵’은 다현, ‘행들 잇’은 채영, ‘디펜드 온 유’는 나연이 노랫말을 썼다.

“첫 정규 앨범을 발매했던 3년 전과 비교해보면 트와이스가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 앨범을 내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가수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트와이스의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지효)

/연합뉴스

원조 셴 언니 이경실, ‘호걸언니’로 유튜브 도전

‘원조 셴 언니’ MC 겸 개그우먼 이경실이 유튜브에 도전한다고 콘텐트 제작사 베리미디어가 26일 밝혔다.

이경실은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 ‘호걸언니’에서 근황부터 과거 추억담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대학 선배 이경규에게 터프하게 굴었던 일화와 고향 후배 박명수가 유독 이경실을 무서워한 이유처럼 재밌는 일화부터 어려운 형편에 놓은 후배들을 도운 일,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 히말라야 칼라파트라를 등정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과거 예능 ‘세바퀴’로 인연을 맺은 배우 선우용녀와 개그맨 손현수가 첫 방송에 참여했다. 두 사람은 ‘셴 이미지 속에 가려진 인정 많고 솔직하며 의



리 있는 이경실의 참모습을 제대로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실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최신 게임 리뷰, 스케이트보드 배우기, 밀리터리 체험, 메이크업 도전기, 인기 유튜브와의 단독 대담 등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SBS ‘꼬꼬무’ 유튜브 표절 논란에 “콘셉트 다르다”

‘사건의리’ 김복준 교수 “논란 원치 않아... 선의의 경쟁 할 것”

SBS TV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하 꼬꼬무)가 유튜브의 한 채널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방송사 측이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꼬꼬무’는 역사 속 사건들의 뒷이야기를 세 명의 MC를 통해 대화 형식으로 전달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꼬꼬무’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유튜브 채널은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리’ (이하 사건의리)다. 2018년 8월 개설돼 현재 28만8천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 채널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윤희 전 프로그래머가 과거 이슈가 됐던 강력사건 또는 미제사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상이 주된 콘텐츠다.

대화 형식으로 사건의 뒷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의 포맷과 지문, 신왕원 등의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유사하다는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불거지자 SBS 측은 표절이 아니라며 26일 입장을 밝혔다.



김복준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진행방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뤘던 사건과 겹친 부분이 있어 불쾌한 마음이 없지 않다”면서도 “논란이 커지기를 바라지 않으며,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Lotte Cinema and GAC (Gwangju Arts Center) featuring movie listings and performance schedules. Lotte Cinema listings include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Samjin Group English Native Class) and '미스터트롯-더 무비, 담보'. GAC listings include '경계의 공간' (Space of the Border) and '상자투의 길' (The Way of the Boxer).